



numbers

vol. 229

다음세대 특집 1: 청소년의 가치관 '결혼은 필수다', 2012년 73%→2023년 30%!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통합소득 양극화 실태
- ② 장기기증 현황 및 인식

Special Report

2024 언론보도와 한국교회 전망

2024. 2. 2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결혼은 필수다’, 2012년 73%→2023년 30%!

청소년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부터 태도 등을 포함하는 행동 양식, 그것을 둘러싼 환경,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 살펴봐야 한다.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기에 그들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프로젝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2008년 시작된 이후 이번에 4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결과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7명(70%)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다음세대 교육 문제’이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세대를 책임질 청소년의 가치관과 삶과 신앙을 2회에 걸쳐 넘버즈에서 정리해서 제공한다.

*넘버즈 211호 참조

[다음세대 특집 리포트]

- ① 청소년의 가치관
- ② 청소년의 삶과 신앙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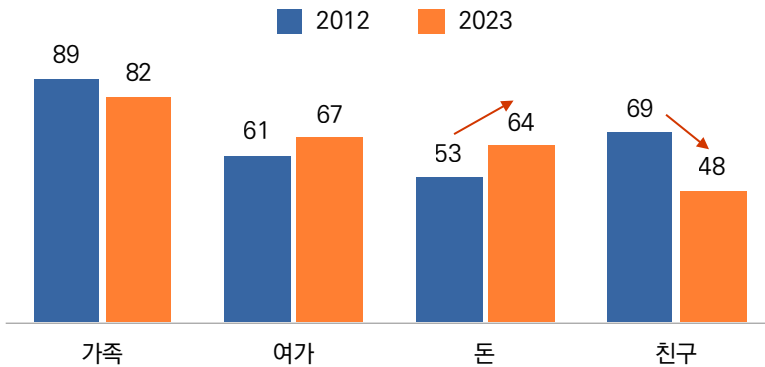
01

[인생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친구' 낮아지고 '돈' 높아져!

- 인생에서 가족, 여가, 돈, 친구와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고,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10여 년 전인 2012년 조사와 비교해 보았다. 두 시점 조사 모두 '가족'이 가장 높았는데 주목할 점은 '친구', '가족' 등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낮아지고, '돈'의 중요성은 높아진 점이다.

[그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청소년, '매우 중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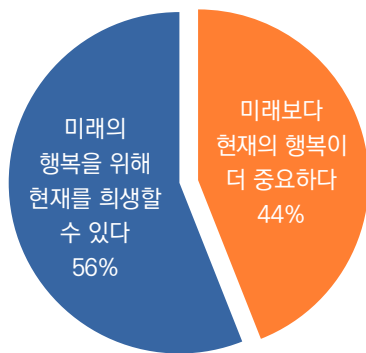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청소년 44%,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 '(현재의 희생이 전제되는) 미래의 행복'과 '(당장의) 현재의 행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청소년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청소년의 44%가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선택했다.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 특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청소년이 현재의 행복을 원하고 있었다.

[그림] 미래의 행복 vs 현재의 행복* (청소년)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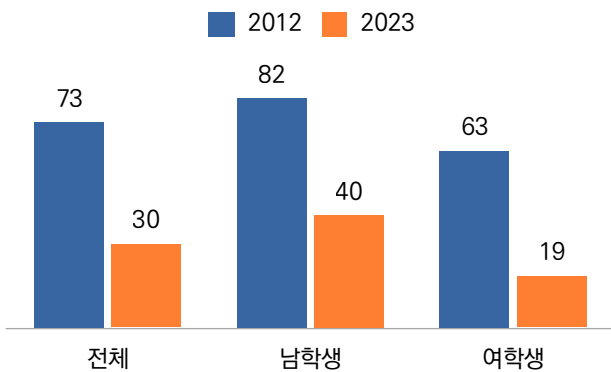
02

[가족관]

‘결혼은 필수다’, 2012년 73%→2023년 30%!

- 청소년들의 결혼관을 살펴보고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30%)만이 ‘결혼이 필수’라는 데 동의했다. 10명 중 7명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응답한 셈이다. 10년 만에 동의율이 73%(2012년)에서 30%(2023년)로 절반도 넘게 떨어졌다.
- 한편, 여학생의 ‘결혼 필수’ 동의율은 19%로 남학생(40%)의 절반에 불과했다. ‘결혼은 필수’라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그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율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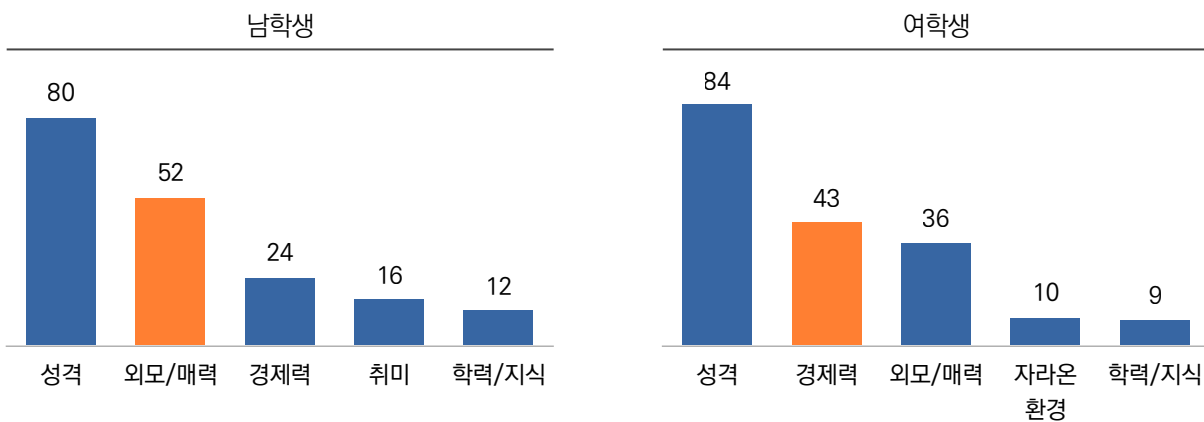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배우자 기준, ‘성격’ 다음으로 남학생은 ‘외모’, 여학생은 ‘경제력’!

- 청소년들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격’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차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외모/매력’ 52%, ‘경제력’ 24%, ‘취미’ 16% 등의 순인 반면, 여학생은 ‘경제력’이 43%로 ‘외모/매력’ 36%보다 더 앞섰고, 이어 ‘자라온 환경 10%’, ‘학력/지식’ 9% 등의 순이었다.

[그림] 배우자 선택 기준 (청소년,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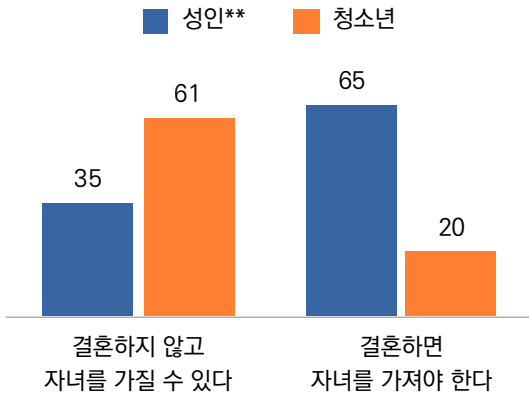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성인 35% vs 청소년 61%

- 청소년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할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61%가 동의해 성인(35%)보다 ‘비혼 자녀 출산’에 훨씬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20%만이 동의해 성인(65%)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성인 vs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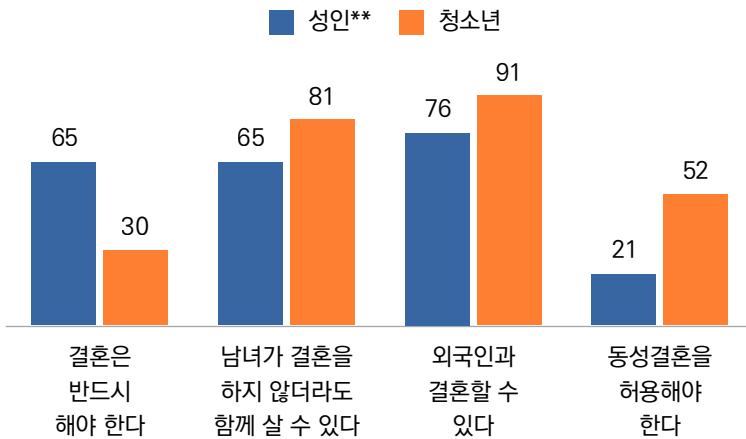
*4점 척도

**통계청, 「사회조사」(2022)

청소년 절반(52%), ‘동성결혼 허용해야’!

- 이번에는 결혼관에 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성인 세대와 비교해 보았다. 청소년의 경우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91%,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81% 등 국제 결혼, 비혼 동거에 대해 성인보다 훨씬 개방적이었고,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청소년 절반(52%)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인 vs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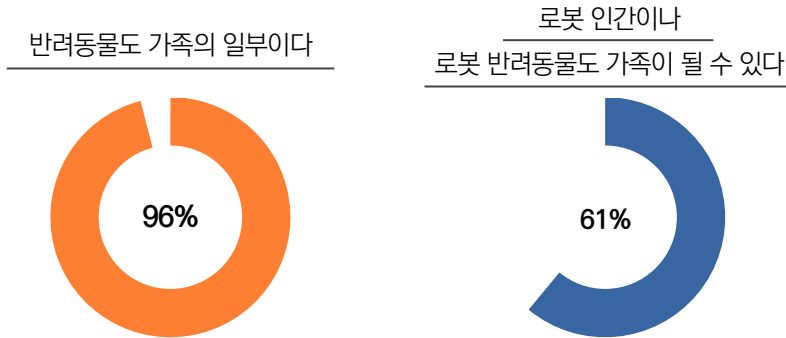
*4점 척도

**통계청, 「사회조사」(202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청소년 96%,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에 대다수(9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에도 10명 중 6명(61%)이 동의했다. 청소년 세대는 혈연관계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동물이나 로봇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가족의 범주 인식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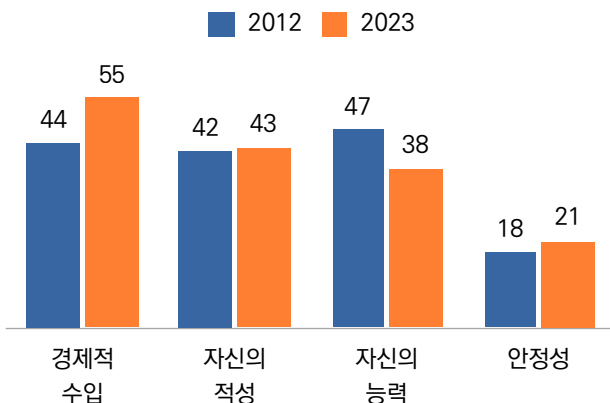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03 [직업관] 직업관, '능력/적성'보다는 '수입'이 우선!

-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파악하고자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을 물었다. 청소년 절반 이상인 55%가 '경제적 수입'을 꼽아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 43%, '자신의 능력' 38% 등의 순이었다.
- '경제적 수입'을 선택한 비율은 2012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자신의 능력' 요인은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돈'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청소년들의 직업관에도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

[그림] 직업 선택 기준 (청소년, 1+2순위, 상위 4위,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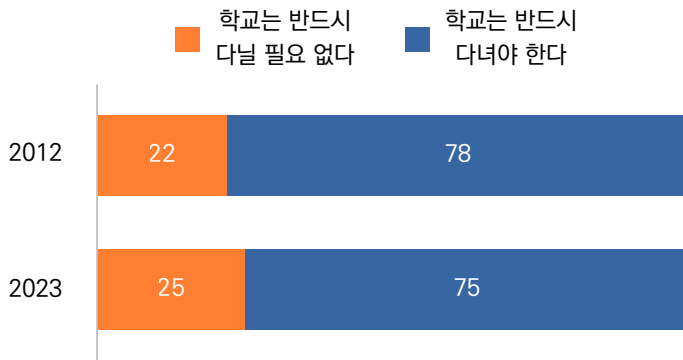
04

[교육관]

청소년 4명 중 1명, '학교 반드시 다닐 필요 없어!'

-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학교는 반드시 다닐 필요 없다'는 응답에 청소년 4명 중 1명(25%)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비율은 22%에서 다소 증가했다.

[그림] 학교 교육의 필요성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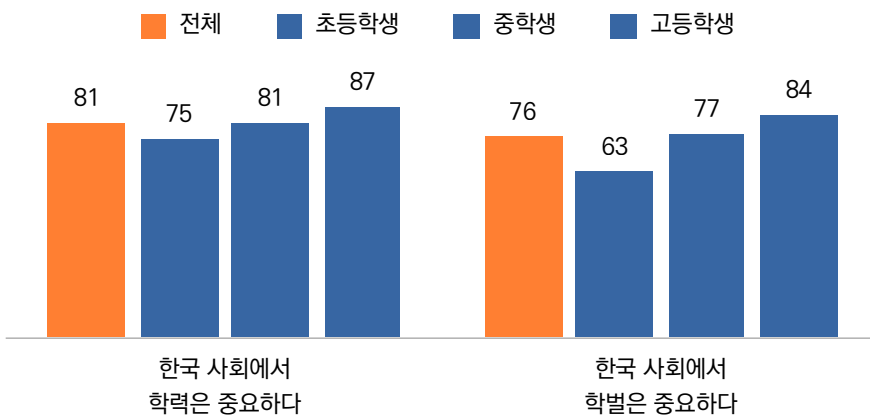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청소년 10명 중 8명, '한국에서 학력과 학벌 중요하다!'

- 청소년들의 학력주의에 관한 입장은 어떠할까?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와 '학벌은 중요하다'는 동의율이 각각 81%, 76%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한국의 학력주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있었다.
-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력과 학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학력주의 가치관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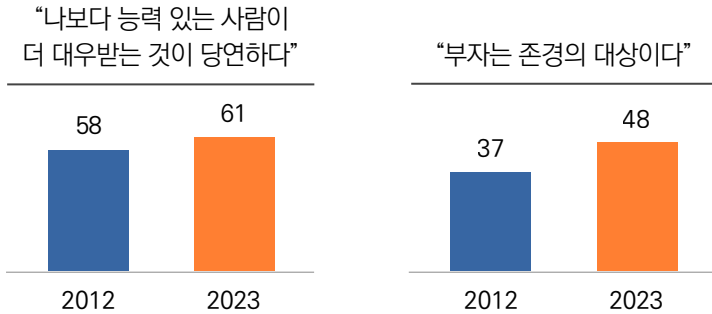
05

[사회 인식]

청소년 절반,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 '능력주의'와 '부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에 청소년 10명 중 6명(61%)이 동의했는데, 2012년 조사(58%) 때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에는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더니 청소년 절반 가까이인 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10년 전 조사 대비 동의율이 11%p 상승해 청소년들의 부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능력주의/부자 인식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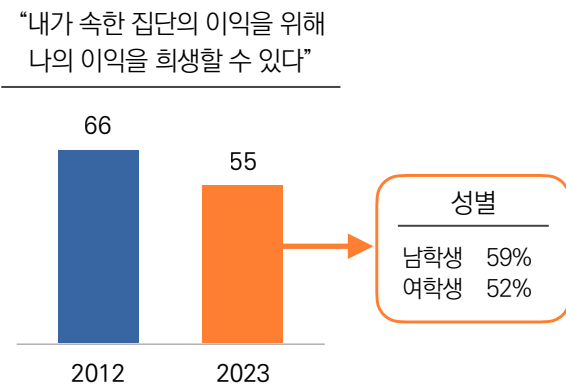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청소년의 집단주의 성향 감소, 개인주의 성향 증가

- 집단과 공동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관련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인 청소년은 55%로 2012년 조사 대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주의 성향이 집단주의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성별로는 남학생이 집단주의 성향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집단주의 가치관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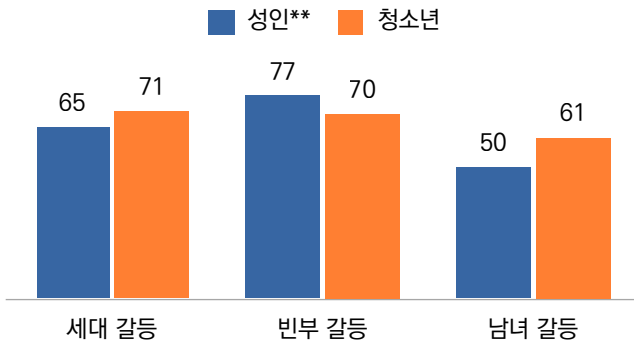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우리 사회 남녀 갈등, 청소년이 성인보다 심각성 더 크게 인식

- 사회 내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남녀 갈등의 심각성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와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가 각각 71%, 70%로 나타나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빈부와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청소년 61%, 성인 50%)는 응답은 빈부, 세대 갈등보다는 낮았지만,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사회 계층 간 갈등 심각성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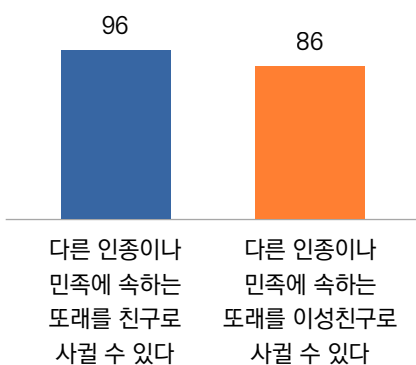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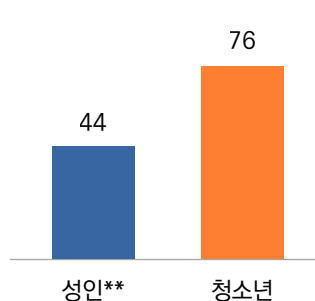
[다문화/난민 수용 인식] '다문화 또래/이성 친구 사귄 수 있다', 86%

- 청소년의 다문화 및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는지' 묻은 결과, '사귄 수 있다'는 긍정률이 96%,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86%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청소년은 친구를 사귀는데 인종이나 민족이 다르다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 수용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76%가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인의 난민 수용 찬성률 44%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타 인종, 민족에 관한 청소년의 수용과 포용이 크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다문화 수용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그림] 난민 수용 찬성률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 (전국 만11~18세 청소년 7,718명, 면접조사, 2023.05.15.~07.14.)

*4점 척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가치관은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평가적 성향'으로 자신과 사회를 평가하는 틀이 되어 개인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래세대가 지닌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통적 가족관·결혼관의 해체'이다. '결혼이 필수다'는 의견에 대해 30%만이 동의했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 결과의 73%에서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수치이다. '비혼 동거'는 81%, '비혼 자녀 출산'은 61%가 동의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해서는 20%만이 동의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인데 무려 절반이 넘는 52%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로봇 인간/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질문에도 61%가 동의해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가족이란 더 이상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두 번째 특징은, '물질 우선주의'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돈'의 중요성은 10년 전 조사 대비 증가했으며(53%→64%), 직업의 선택 기준도 자신의 '적성'(43%)이나 '능력'(38%)보다 '경제적 수입'(55%)이 더 높았다. 청소년의 절반(48%)은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했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보다 11%p 증가한 수치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돈은 더 확보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 '탈경계 주의'이다.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75%만이 동의해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교 다닐 필요를 부정하고 있었고,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집단주의 인식은 55%로 10년 전 조사 대비 11%p가 감소해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다른 인종과 민족에 속하는 또래와 이성으로 사귄 수 있다는 비율이 86%에 달했고, 난민 수용 찬성률은 76%로 성인(44%)보다 크게 높았다. 기성세대가 구축한 사회 규범과 기준에 더 이상 얽매지 않는 다양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받아들일 교회학교를 생각해 보자. 외부적으로는 청소년 세대가 가치관이 전통적인 가족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탈규범적인 성향에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화가 심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학교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¹⁾ 교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전도사 구인난, 3040 부모 세대의 믿음 약화, 교인의 고령화 등의 문제까지 더하면 규모가 적은 교회는 교회학교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까?

청소년들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 청소년이 성경적 가치관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 기준 아래 세속적 가치관과 구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가 기성세대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화는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교회의 문화와 큰 간격이 있다. 교회는 자유롭고 개성적인 청소년 문화에 맞는 예배 환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활동을 찾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진행하는 담당 사역자에게 신뢰와 권한을 주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된 청소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굳건해질 때 교회의 미래도 함께 단단해질 것이다.

1) 넘버즈 222호 '장래 인구 추계'편 참조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통합소득 양극화 실태
2. 장기기증 현황 및 인식

Special Report

2024 언론보도와 한국교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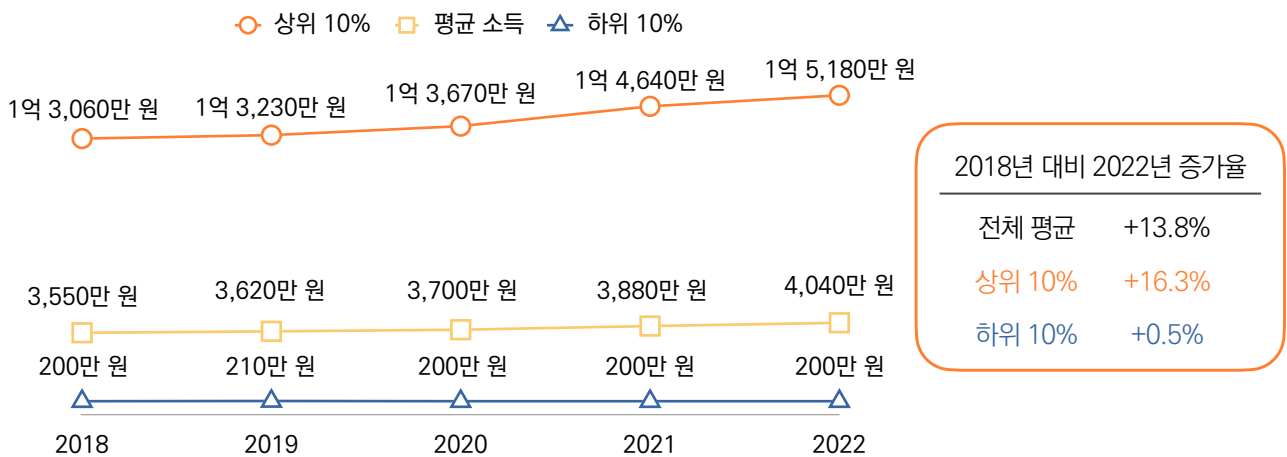


[통합소득 양극화 실태]

통합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차이, 76배!

- 우리 국민의 근로소득분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서 발표했다.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은 4,040만 원이었는데, 같은 해 상위 10%는 1억 5,180만 원, 하위 10%는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무려 76배로 나타나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은 16.3%로 나타난 데 반해, 하위 10%의 증가율은 0.5%에 그쳐 두 그룹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통합소득* 상·하위 10% 1인당 연 평균 소득 추이



※출처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통합소득 최상위 0.1% 연 평균소득 17억9천640만원' 보도자료, 2024.02.16.(국세청 데이터 근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 소득, 18억!

- 그렇다면 통합소득 상위 0.1%의 평균소득과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 9,640만 원으로 약 18억 원가량이었고 한 달 평균으로는 약 1.5억 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통합소득은 전체 통합소득의 4.5%에 해당했다.

[그림]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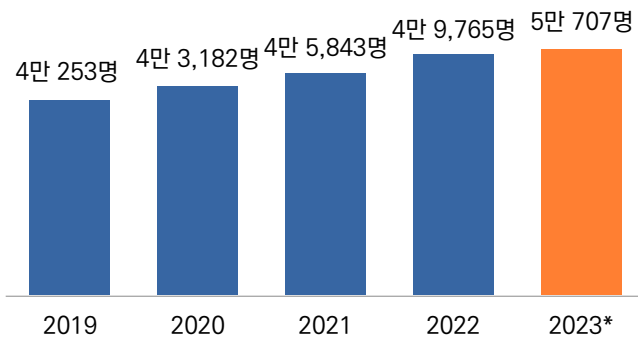
※출처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통합소득 최상위 0.1% 연 평균소득 17억9천640만원' 보도자료, 2024.02.16.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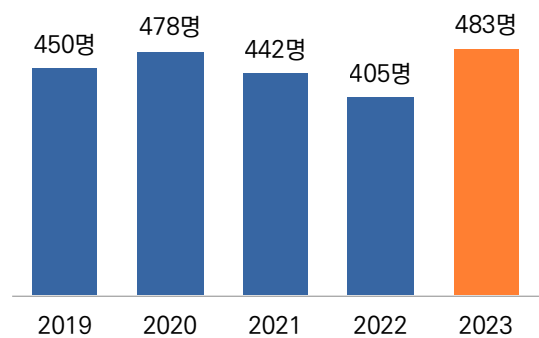
[장기기증 현황 및 인식] 장기이식 대기자 5만 명, 기증은 연 400명대!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생존 시 대부분 가족, 친척 등에 의해 이뤄지는 '생존 시 이식'(신장 이식 등)을 제외한 '뇌사자 장기기증 수'와 '장기이식 대기자 수'의 5개년도 추이를 살펴본다.
- 장기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대기자 수는 2023년 9월 기준 5만 707명으로 매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2019년 450명, 2020년 478명, 2023년 48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4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자 수는 1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장기기증 수는 총 2,258명에 불과해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장기이식 대기자 수 (수요자)



[그림] 뇌사자 장기기증 수 (공급자)



※출처 : 연합뉴스, '장기이식 대기자 5만명 넘었는데...뇌사장기기증 매년 400명대', 2023.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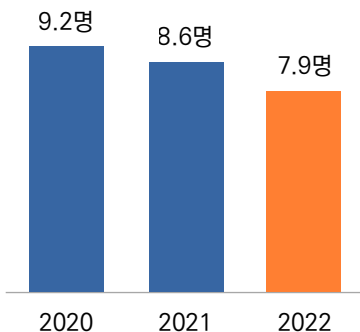
※출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통계(월별 뇌사자 장기기증건 추이) 참조(<https://www.koda1458.kr/info/donor.do>)

*2023.01~09.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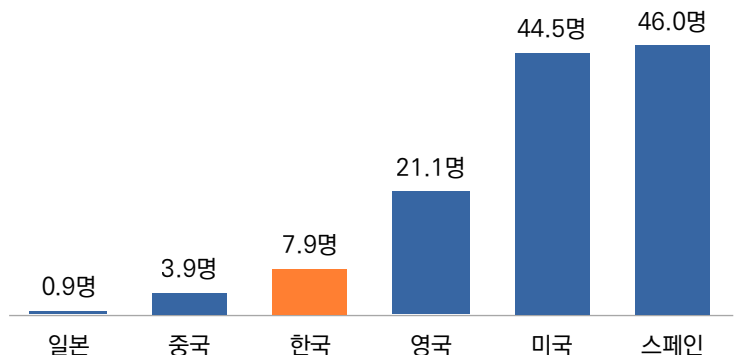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뇌사 장기기증자 비율, 미국보다 6배 낮아

-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률의 변화는 어떠할까?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 비율인 '뇌사 기증률'을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7.9명으로 2020년 9.2명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 뇌사 기증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미국 44.5명, 영국 21.1명 등으로 주요 국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일본과 중국은 우리 나라보다 더 낮았다.

[그림] 뇌사 기증률 추이
(2022,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



[그림] 뇌사 기증률 주요국 비교* (2022,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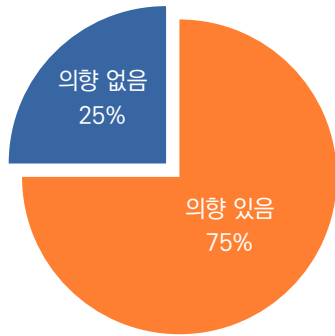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장기이식 대기자 5만명 넘었는데...뇌사장기기증 매년 400명대', 2023.11.26.

*국제장기기증이식등록기구(IRODaT, The International Registry 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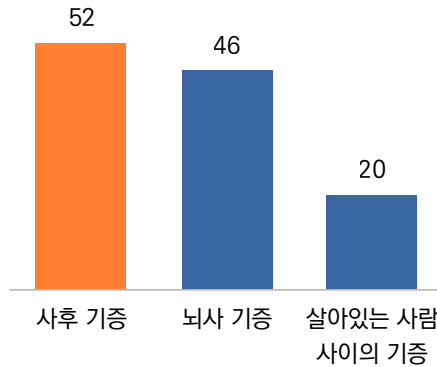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장기기증 의향 있다!

- 낮은 뇌사 기증률의 이유를 찾기 위해 최근 발표된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자료를 살펴본다. 우선 장기 기증 의향에 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꼴인 75%가 ‘의향 있음’이라 응답했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장기기증 유형으로는 ‘사후 기증’ 52%, ‘뇌사 기증’ 46%,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 20% 순이었다.

[그림] 장기기증 의향



[그림] 장기기증 의향 유형* (장기기증 의향자, 중복응답, %)



※출처 : 여론 속의 여론,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7.21.~07.24.)

*장기기증의 유형

①뇌사 기증: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되는 장기기증으로, 신장, 심장, 폐, 안구 등의 장기기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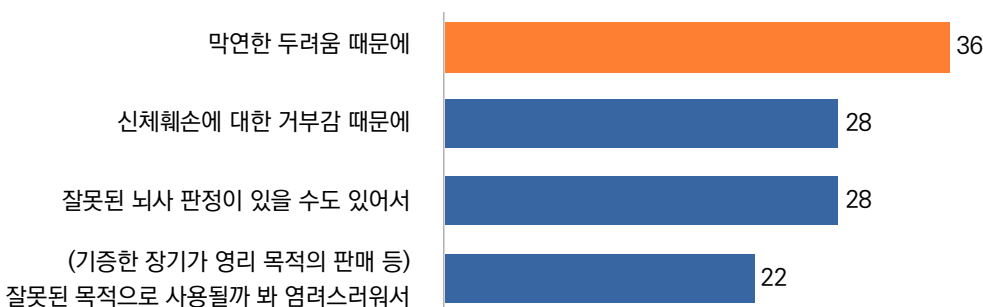
②사후 기증: 사망한 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인 안구기증으로 진행

③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혹은 타인간의 살아있는 사이의 신장, 폐, 췌장, 소장 등의 장기기증이 진행

뇌사 시 장기기증 망설이는 이유,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

-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막연한 두려움(36%)’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28%)’, ‘잘못된 뇌사 판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28%)’, ‘기증한 장기가 영리 목적의 판매 등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22%)’ 등의 순이었다.
- 장기기증을 망설이게 하는 잘못된 정보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의향자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 (뇌사 기증 의향 없는 응답자, 상위 4위, 중복응답, %)



※출처 : 여론 속의 여론,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7.21.~07.24.)

뇌사 장기기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

뇌사 상태여도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 (X)

뇌사 상태에서도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다. (X)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수술부위 봉합 등 기증자의 신체를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른다 (X)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수술 후 기증자의 신체 이송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X)

장기기증 후 일반적인 장례절차인 염, 입관식을 진행할 수 없다. (X)

2024년 언론보도와 한국교회 전망

2024.01.30.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크로스미디어랩 공동

다보스포럼 및 주요 싱크탱크가 전망하는 2024년 글로벌 이슈를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선거' '기후위기' 'AI' '갈등'이다. 올해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 전세계 83개 지역에서 40억 명이 참여하는 선거가 치러지며, 선거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도 예측된다.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24'를 통해 지구촌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기후위기'를 꼽았다. 엘니노에 따른 기온 상승과 자연재해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의 실용 서비스가 가져온 파장이 2024년에는 사회 전방위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과 더불어 국가간 종교간 사회계층간 정치.사회갈등은 선거와 연계하여 증폭될 개연성이 높다.

국내적으로는 4월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대립적 갈등이 편향적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홍수 무더위 등 자연재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합계출산율 0.7 이하라는 초저출생 그리고 1년 이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20%라는 초고령사회진입, OECD 국가중 연간노동시간 최상위, 노인자살율 1위, 공동체성과 사회안전망 하위, 신뢰도 및 행복지수 하위권 등은 2024년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리스크이다.

한국교회적으로는 지속적인 신자수의 감소(10년 이내 신자수 500만 명 이하 예측), 초고령화(교회 노인 인구 비율 50% 상회), 가나안 신자 확산(교회 소속되지 않은 신자 약 40%), 양극화(교회규모와 신앙칼라)와 정체성 혼란, 온라인 예배와 새로운 형태의 교회 등 성장쇠퇴기와 함께 전환기적 환경속에 이미 들어섰다.

변화와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세계화 시대, 2024년 한국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며, 어떤 기대와 리스크가 있을까?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되찾아 갈 것인가? 더불어 2024년 언론에 비춰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지난 6년간의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 이슈의 추이와 특성을 근거로 2024년 교회관련 언론 보도의 몇 가지 전망을 제시한다.

1. 편향적 정치운동

지난 5년간 한국교회 관련 뉴스에서 언론이 주목한 대표적 인물이 전광훈 목사이다. 팬덤정치와 갈등사회속에 전 목사의 편향적 정치활동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면서 사회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전후 사회언론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전달하는 중요한 관점이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2024년은 우려되는 한 해이다. 올해 4월 총선을 전후하여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의 정치활동은 물론, 전 목사 중심의 연중 거리집회와 편향적 정치연행이 올해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한 2018년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보도한 에스더 기도운동 사례와 같이, 갈등사회와 AI 활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교회 내 가짜뉴스와 편향적 정치활동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

2. 주요 이단의 새로운 국면 전개

현재 진행중인 JMS의 성폭행 관련 재판은 올해도 언론의 관심속에 교회의 왜곡된 이미지를 확산시킬 것으로 본다. 코로나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신천지의 공세적 활동 역시 예견된다. 대사회봉사활동과 전세계 300만 교세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언론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쁜소식선교회와 이단성 집단의 이미지 재고와 교세 확장을 위한 언론홍보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김기동과 이재록의 사망 이후 성락교회와 만민중앙교회의 교세 위축과 내부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숨 고르기 중인 통일교와 기타 여러 사이비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보가 돌출적 사건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3. 목회자 성추행

목회자의 교인 성폭행은 지난 6년간 이단은 물론 대형교회까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현재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몇몇 사례를 포함 목회자의 성추행과 사기 등 비윤리적 일탈은 올해도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뉴스앤조이의 기획보도를 통해 살펴봤듯이, 목회자 성폭행 관련하여 주요 교단의 법적 제도적인 대처가 소극적 상황이 이런 우려를 불러온다.

4. 연합기관의 전환기적 상황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NCCK가 새로운 총무를 선임한 이후 여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교총과 한기총의 통합 움직임 등 양대 연합기관의 활동이 다수 보도될 것으로 본다. 근래 정부에서 사회자산으로서 종교자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과의 협력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또한 1974년 로잔대회 5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가 오는 9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개혁교회의 정체성과 선교활동을 성찰하는 세계적 행사이며 국내 개최로 인한 접근성이 좋지만, 지난 2022년 WCC 11차 총회 관련 언론의 패싱을 고려하면 언론의 자발적 관심이 높을지는 의문이다. 기타 CCC의 엑스플로74 50주년 행사, 국가조찬기도회 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난해 유사 사례로 볼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5.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다시 갈등적 이슈로 부상할 개연성이 있다. 지난해 가톨릭 교황의 동성애자 축복에 대한 전향적 발표가 있었고, 미국 감리교회의 UMC와 GMC 분리에 따른 상황,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 항소심 진행, 대형교회 목회자 중심의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그리고 지역별 귀어축제 등으로 동성애 문제(차별금지법 반대)가 진보성향의 언론을 중심으로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 초대형교회와 영향력 있는 목사 팔로우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온누리교회 등 초대형 교회의 사역 그리고 이영훈, 장종현, 소강석, 오정호, 이재훈 목사 등 초대형교회 담임목사 및 유명 목사에 대한 주류 언론의 선호도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7. 한국 교회사의 재조명

올해는 메클레이의 고종 알현에 따른 교육과 의료선교 개방 및 알렌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선교 140주년이다. 또한 첫 자생교회인 소래교회 설립 140주년이기도 하다. 특히 NCCK 설립 100주년 및 '목요기도회' 50주년, 장로회 남선교회 창립 100주년, 첫 민간방송인 CBS 창립 70주년, 연동교회와 평양 장대현교회 130주년 그리고 100주년이 되는 여러 교회(복교동, 자양, 체부동, 고부, 진주성남 등), 100년 전후의 역사를 가진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상향.오클랜드 연한감리교회,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 등) 등이 한국근대사적 관심 고조와 더불어 언론의 재조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8. 국내외 종교갈등

미국 대선에서 중하층 백인 보수기독교인이 트럼프의 지지세력으로 자주 회자되기에 이후 관련 보도가 증가 할 것으로 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위기를 종교갈등 측면에서 보는 뉴스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케냐 사이비 종교의 집단아사사건, 중국과 북한의 종교탄압 등 세계 곳곳의 종교갈등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적으로는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건축 갈등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대구시향의 '합창' 공연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논란, 신안군의 섬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종교편향 논란 등 기.천.불이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종교편향 및 종교갈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한편 4대 종교 성직자로 구성된 '만남중창단', 4대 종교인이 참여한 '2024 DMZ 생명평화순례' 등 종교간 연대와 평화 활동 역시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본다.

9. 사회이슈 관련 교회의 역할

기후위기, 저출생.초고령화, 자살예방과 생명가치, AI, 치유와 성찰 등 한국사회 이슈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역할 관련한 언론의 관심도 예상된다. 탄소제로와 녹색교회운동, 한교총의 산불이재민 집짓기, CBS와 CTS의 저출생 극복 캠페인, 베이비박스, 다문화.탈북자.노숙자 사역 등 한국사회 이슈 관련하여 사회자산으로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조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뉴노멀과 '네오 에클레시아'

지속적인 신자수 감소, 초고령화, 가나안 신자 35% 상회, 일상화된 온라인예배 그리고 디지털교회, 목회 이중직과 인생 2기 목회자, 신학교 미달과 새로운 신학교육, 카페교회와 캠핑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시도 등 사회구조적변동과 맞물린 교회의 새로운 모습(neo ecclesia)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기독교언론 소셜미디어 사회언론의 상호교류속에서 사회언론의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속성상 교회의 갈등적 이슈는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변화에 맞는 교회 뉴스의 발굴로써 '네오 에클레시아' 현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5호\(2024년 2월 4주\)](#)

- 측면별 정당 이미지,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16호\(2024년 2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22대 총선 인식,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

["수도권 20·30세대, 민생 안정이 총선 핵심의제"](#)

연합뉴스_2024.2.22.

사회 일반

[누가, 얼마나 외로운가? -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2.21.

[한국인 삶의 만족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연합뉴스_2024.2.22.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연합뉴스_2024.2.22.

[집단사직 나선 전공의 1만3천명... "응급·당직 등 필수의료 핵심"](#)

연합뉴스_2024.2.19.

["돈만 잔뜩 쓰고 만족도 낮다" 가성비 최악의 여행지는 여기](#)

중앙일보_2024.2.21.

["감농사 1년 잘 지었는데, 갑자기 나가란다"... 귀농 청년 배신한 시골 인심](#)

조선일보_2024.2.23.

청년 · 청소년

[전국 대학 87%, 정원 미달... 서울지역 31곳도 추가모집](#)

동아일보_2024.2.26.

[올해도 팍팍할 청년의 삶...주요 이슈는 경제 여건 악화와 주거 불안](#)

문화일보_2024.2.20.

경제 · 기업

[직장인 "저출생 해결하려면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현금성 지원"](#)

연합뉴스_2024.2.25.

["현재 N잡 하고 있다" 20대도 34%...이 직업이 제일 많았다](#)

중앙일보_2024.2.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육아 전담 남성 10년새 3배로 늘어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중앙일보_2024.2.21.

[서울 상위 0.1% 자영업자 소득 26억원...경북은 11억원 '2.4배차'](#)

연합뉴스_2024.2.24.

["3040 영끌족, 고금리에 소비 가장 많이 줄어"](#)

동아일보_2024.2.26.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 근로자 월급 426만원... 전국 시군구 중 1위](#)

조선비즈_2024.2.25.

국제 · 환경

[세계에서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 '압도적' 1위는](#)

조선일보_2024.2.23.

[자살 절반으로 줄이고 '행복한 나라' 된 핀란드...기적의 비결은](#)

연합뉴스_2024.2.23.

["아이 있으면 피곤한 초저출산 국가"...韓노키즈존 때린 외신](#)

중앙일보_2024.2.20.

[고령 보수 유권자가 '기후문제'에 더 적극적...왜?](#)

경향신문_2024.2.25.

건강

[배우자 외도 경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많아](#)

조선일보_2024.2.16.

["소금 적게 먹는 것보다 '이것' 먹는 게 고혈압에 더 효과적"](#)

동아일보_2024.2.23.

[아침밥 수저보다 먼저 드는 폰...손목 관리 5계명](#)

조선일보_2024.2.21.

기독교 · 종교

[주일 현장예배 87% 회복...소그룹 잘하는 교회 성장률 높아](#)

아이굿뉴스_2024.2.22.

[작년 교회 성폭력 사건 가해자 68%는 목회자...“이러니 못 믿어”](#)

문화일보_2024.2.21.

[주차장 밀고 풋살장...소멸 지역서 다음세대 살길 낸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2.25.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움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우륵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대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해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체, 마을학연구소, S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대전은평교회(담임목사 성수룡), 김평강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시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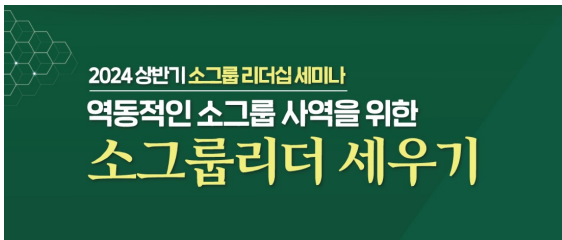
월드비전은 매년 한국교회와 함께 고난주간 묵상캠페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9일
- 묵상기간 : 2024년 3월 24일 ~30일(7일간)
- 참여방법 : 고난주간 묵상집에 따라 진행
- 제공사항 : 캠페인 신청 시 광고영상, 포스터, 묵상노트, 오디오낭독 유튜브 링크 제공

묵상노트 신청하기

캠페인 살펴보기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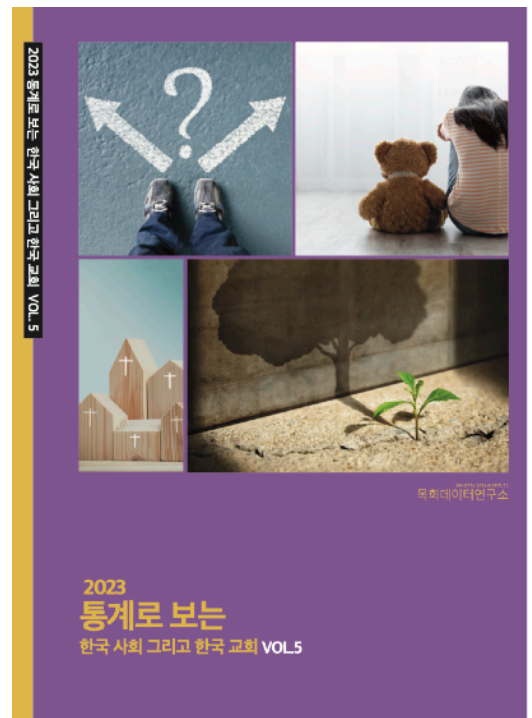
2024 상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3월 2일(토) 오후 2:00~3:30
- 장소 : 서현교회(마포구 서교동) 본당 및 유튜브 중계
- 접수 : 온라인(QR or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 기한 : 2024년 3월 1일(금)까지
- 회비 : 1인 10,000원, 교회접수는 전화문의
- 문의 : 070-7578-2957

연구소 소식

- 2023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3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5>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목사 이영훈)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자 중 아직 책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2-322-0726)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